

신안군, 고수온 대응 전복 양식관리 교육

장산면 해상가두리 사육관리 현장 기술교육 실시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전문연구원 초빙

신안군은 최근 연이은 폭염과 고수온이 지속되면서, 고수온 대응을 위한 양식생물 관리방안 및 신속한 피해예방 대응조치 등을 위한 전복 사육관리 현장 기술교육을 27일 장산면 해상가두리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신안군의 여름철 고수온기 양식 수산물 피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전문 연구관을 초빙, 전복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진행하여 어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주요 교육내용은 전복의 생식 및 성장 주기에 따른 단계별 양식관리 및 고수온 대응 요령을 설명하고, 교육에 참석한 양식 어업인들로부터 양식장에서 발생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다음 일정은 흑산권 지역의 어류 및 전복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추가로 어업인 간담회 및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7월부터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양식 어가별 문자발송, 현수막 설치, 어장예찰 등 전 행력을 동원하여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고수온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소발생기, 차광막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함평군, 폭염 속 농작물 관리 당부

농업인 안전·농작물 피해 예방...현장기술지원단 운영 강화

함평군이 최근 지속된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농작물이 고온에 노출 될수록 품질 저하, 생육부진, 수량감소 등의 피해가 나타나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먼저 과수의 경우 햇볕데임(일소현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물 주변에 초생재를 하거나 주기적인 관수를 실시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시설재배에는 온도가 높아지는 오후에는 3~4시간 동안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안개분무기로 미세 살수를 실시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밭작물은 스프링클러를 가동해 충분히 수분을 공급하고 비닐 피복재나 부직포 및 짚 등으로 작물 뿌리 주위를 덮어 토양이 적절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농작물이 고온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석회와 유기물이 부족하지 않게 관리하고 탄저병, 진딧물 같은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농업인들은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장 더운 낮 시간대(12시~17시)에는 무리한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 작업을 해야 할 때는 모자와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며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갖는 것이 좋다.

박은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읍면담당제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기술지원단' 운영을 강화하고 폭염 대비 비상체계를 구축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기자

무안읍 도시재생 주민공모 참여단체 모집

지역 내 주소지·생활권 둔 주민 5인 이상 모임 또는 단체 대상

무안군은 주민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도모하고자 2021년 하반기 무안읍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무안군에 주소지나 거주·생활권을 둔 주민 5인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이며, 단체들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문화·복지·경제 등 여러 분야의 사업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총 6개 단체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 사업비는 건당 최대 1000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8월 9일부터 13일까지 군청 지역개발과에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스스로 기획한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사업화 논의 등 상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동안 군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그룹화 활동을 통한 공동체 형성과 주민 참여 실행계획서 작성 등 여러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무안=이기성기자



영광군, 법성포 굴비거리 조성 음식·관광 문화 활성화 나선다

음식여행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에 눈길 끌어

영광군은 2019년 5월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명품 남도음식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 선정 후 올해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다.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 조성사업은 굴비의 본고장인 영광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음식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굴비거리 상징물과 포토존을 설치하였고 음식점 간판정비와 보행로 정비 등 환경개선과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고 음수대를 설치하였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음식여행에 관심을 갖는 관광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굴비정식을 남도의 맛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상품화하여 각종 축제와 연계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대외적으로 알려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 조성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문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이 다시 활기를 찾아 모두가 함께 웃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 5차 회의 개최

외부감사 중간보고회...다음달 중 최종 결과 시민 공개 예정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28일 제5차 회의 및 외부감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시내버스 감시기관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태원여객·유진운수 본사를 방문해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현장실사는 감시기관과 전문 용역사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공론화위 및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참관해 회차 경연자료를 확인했다.

감시기관은 현장실사시 확인한 자

료를 토대로 이번 5차 회의에서 경영 실태검토 및 외부 회계실사 용역에 대해 중간보고를 했다.

보고회는 시내버스에 대한 경영관리 및 재무구조에 대한 검토, 외부 회계실사 추진사항 등 주요과업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공론화위는 오는 8월 중 외부감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갖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목포=박정수기자



영암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주말반 운영

10월도 야간반도 예정

영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송영희)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재외동포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센터교육장에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주말반을 운영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은 평일 주간반 뿐만 아니라 7월 한 달 주말반 운영중이며 10월 한 달 야간반도 운영 예정이다.

다문화가족들에게 배움의 욕구가 중단되지 않고 가정 내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자 한다.

센터 관계자는 "바쁘고 힘든 일 중에서도 한국어교육을 열심히 참여하는 대상자들을 보면서 지속적인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참여기회의 폭을 넓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